

e매거진 : 뉴스 / 하드웨어리뷰 / 브랜드담구 / 시스템소개 / 음반리뷰 / 업계소식 / 하이파이클럽시정실 / 공지사항

웹진 > 하드웨어리뷰 >



밀레니엄 이후의 스피커들에게 놓여진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소재의 무한개발과 사실적인 어쿠스틱, 그리고 음악을 통한 예술혼의 구현 등 그 입구와 출구 모든 면에서 이전의 어느 때보다 뛰어난 멀티플레이어가 요구되었다. 물론 가격은 정지된 채로 말이다. 이런 이유로 친구를 막론하고, 제조사들은 확실한 루트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일을 던지질 않았다.

잠시 시장의 흐름을 환기시켜 보자면, 감속을 하기 시작한 선임 오디오파일들 뒤로 늘어선 대열 속에서 과거의 명기들은 차레차레 재조명되기에 이르렀고, 특정 모델들의 유례 없는 품귀현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아예 무한비용의 전지전능한 스피커를 만들자는 결론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오디오의 최대 프로슈머(공동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북미시장은 목하 대공황 이래 최악의 정체를 겪고 있느라 정신줄을 놓아 버린 듯하다.

ALBEDO BRIGHTNESS IN SOUND HL 3.4



트렌드? 트렌드가 없다는 게 현재의 트렌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다양성이 시도되느라 이렇다 할 주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면 바람직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자칫 시장을 살펴보자고 드라이브를 했다간 오디오가 문화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브랜드 별 개성이 실종되어 간다거나 리메이크, 마이너 체인지의 만연 등 소비자들이 갈증을 느낄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장황하게도 이런 환기를 해보는 이유는, 대략 시장에서 희박해진 '슈퍼스타'의 출현이 절박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발자국을 더 내밀었다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양적으로 늘어나서 흐름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오디오파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다. 그런 차원에서 '알베도'의 제품은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상당히 신선하고 의미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보인다.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보안접속 ID/PW 저장



최신글

- ▶ [ALBEDO] HL 3.4, 지역을
- ▶ [dCS] Debussy DAC, 경갈
- ▶ [Transparent Audio] Po
- ▶ 메리디안 Media Core 200 출
- ▶ 오디오데스크 "LP 클리너" 국내출시

쇼핑몰

Fermata For Audio D-COVER 750 W28,000 원	Bakoorn BPS-01 Battery Power Supply (5V, 6V 일반형) W450,000 원
Antelope OXC 마스터 클럭 W2,200,000 원	TAOC PTS-A W199,000 원

하이파이클럽 e매거진 협찬사





알베도 HL3.4는 현재로서는 동사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일반적인 중고급기가 아닌 하이엔드 오디오에 있어 이탈리아 태생의 기질은 그 질적 완성도 면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알베도 HL3.4는 현재로서는 동사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일반적인 중고급기가 아닌 하이엔드 오디오에 있어 이탈리아 태생의 기질은 그 질적 완성도 면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스피커의 외적 완성도는 대단히 뛰어나다. 굳이 유사한 컨셉트의 회사를 찾는다면 소너스파베르를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잠시라도 그 실물을 살펴보면 화려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디자인적으로 그 방향 설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바닥면을 스틸 베이스만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하다. 스피커는 타임도메인을 맞춰 뒤로 누운 설계로 인클로저가 베이스를 기준으로 전통적인 수직 연장이 아니라 전면 일부만을 축으로 연결시킨 구조를 하고 있다.

Google 광고

해외교민용드라마, 소주파일
 해외지역교민용 웹하드, TV드라마, 영화제중원/동이/만화, 강좌(목사/스님)
www.sojufile.com

경매사이트 클릭베인
 최저가경매, 최저가쇼핑 10원경매쇼핑, 90%할인, 정품보장
www.clickbay.co.kr



스피커는 타임도메인을 맞춰 뒤로 누운 설계로 인클로저가 베이스를 기준으로 전통적인 수직 연장이 아니라 전면 일부만을 축으로 연결시킨 구조를 하고 있다.

특히 앞뒤로 굉장히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인클로저는 미로형 특유의 외적 특징을 심미적으로 하나의 조각과 같이 마감하여 완성하였다. 왼쪽으로 만들어진 전면 배틀 역시 목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판화처럼 수직 방향의 음각으로 파놓은 모습이 독특한데, 일반적으로는 회절에 대한 효과도 감안한 디자인으로 짐작된다.

인클로저는 메인 바디의 측면에 네 겹의 적층을 둔 패널을 감싸듯이 접합시켜 만들었다. 초고가 스피커에 익숙한 모습의 이 성형 접합목은 지중해에서 나는 서로 다른 3종류의 원목을 가공해서 제작한 것으로 측면을 포함한 곳곳을 두드려 보면 대단히 견고하게 제작되었으면서도 목질감이 도드라진다. 그리 많은 스토리를 듣지 않더라도 이 스피커의 몇 군데를 살펴보면, 음악 꽤나 듣고 자신의 스타일 정도는 코디할 수 있는 공학도가 스피커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쉽게 들 것이다.



이 회사의 핵심기술은 베이스 어쿠스틱, 즉 트랜스미션 구조의 스피커에서 이상적인 저역을 구사하는 기술이며 '헬름홀라인' (Helmholine)이라 칭하는 자사개발 방식으로 일괄할 수 있다

이 회사의 핵심기술은 베이스 어쿠스틱, 즉 트랜스미션 구조의 스피커에서 이상적인 저역을 구사하는 기술이며 '헬름홀라인' (Helmholine)이라 칭하는 자사개발 방식으로 일괄할 수 있다. 이 방식에 대한 자사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트랜스미션 방식 스피커 설계의 과제는 덕트에서 방사되는 대역 스펙트럼을 어떻게 정리해주는냐에 있고, 이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서 중저역에서 발생하는 2차 피크가 낮은 남성역에 착색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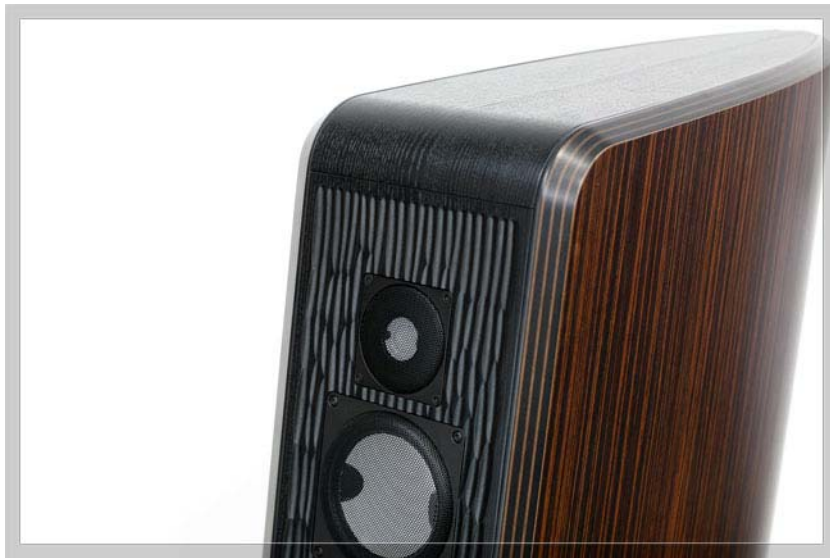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피커 내에 흡음재 등을 사용하면 전 대역에 걸쳐 원치 않는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지 못한 방식이다. 헬름홀라인 방식은 독일의 물리학자 헬름홀츠가 개발한 공명방식을 로마대학교 물리학 팀의 기술을 도입시킨 다중 공명 방식으로, 흡음재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미션 라인 통로를 중탄력 폴리우레탄으로 마감하고 각 유닛 드라이버를 고강도 캐비닛으로 마감해서 해결하고 있다.

앞뒤로 굉장히 깊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인클로저는 미로형 특유의 외적 특징을 심미적으로 하나의 조각과 같이 마감하여 완성하였다.



설계자인 마시모 코스타라는 이름은 조만간 그보다 앞서간 이탈리아의 오디오 명인, 예컨대 프랑코 셀브린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구구한 절차들을 암묵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론적 배경도 화제성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해 보이고, 그 다음으로 스피커가 연출하는 분위기, 그리고 사운드 컨셉트에 이르면 애호가들이 속속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스피커에서의 절반 이상은 지역의 성능이다. 설계자의 말 대로 트랜스미션 스피커의 고질적인 지역 피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궁금하다. 어느 대역인지를 숫자로 들이대는 것은 현재의 시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특유의 부스팅이 있는 필자가 아는 대표적인 음반들을 테스트해보는 방식으로 판단을 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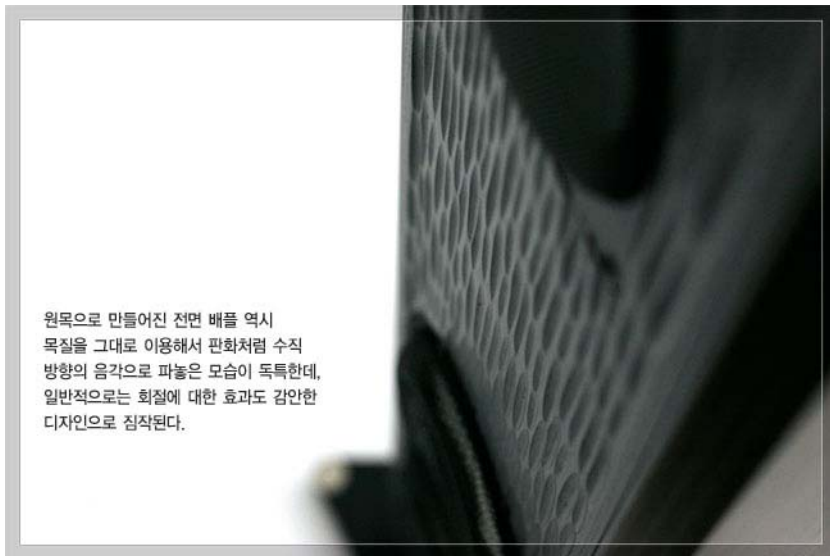
우선, 그룹 머룬 5의 'Makes Me Wonder'에서의 베이스는 양감이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음의 두께랄까, 살집을 유지시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근육질이 줄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과는 다르다. 따라서 프레이징이 좀처럼 왜소해지지 않고 시종 뚜렷한 윤곽을 그려내어서,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도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한편 높은 대역의 피크에서 일부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도 있었는데, 시간이 좀더 지나서 다시 시청을 했을 때는 거의 다른 분위기로 일소되어 있었다. 신제품이라는 점은 항상 감안해야 하지만, 아큐톤 유닛의 워밍업 시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엑스의 '지하철을 타고'의 경우는 좀더 독특한 느낌을 선사해준다.



이 곡 도입부의 낮은 지역과 박진감 넘치는 다이내믹스는 대역 특성이 뛰어난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해서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예컨대 카르마의 스피커 같은 경우가 교과서 같은 '리듬 앤 페이스'를 보여준 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동일 유닛을 사용한 알베도에서의 소리가 공명했다. 더 큰 우퍼를 사용한 알베도 HL3.4는 이 부문에서 유닛의 숫자만큼의 성능을 보여준다. 여유 있는 뽀침, 절도 있는 다이내믹스, '위력'에 가까운 슬랩 등, 강건하면서도 '구체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지역 성능을 보여준다.

리 컷나위의 'Countdown'은 스피커마다 엇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곡인 듯 하지만, 실은 그 평균 이상의 정교한 다이내믹스를 표현해주는 스피커를 찾아내기엔 좋은 곡이다. 데이브 그루신이 손질한 곡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대규모 우퍼에서는 리듬이 영키기 쉽고, 공진을 억제한 스피커에서는 맛있는 느낌이 되기 때문이다. 그 중간을 가면서 이 곡의 본령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알베도 HL3.4는 함격점을 받을 만하다. 지역이 끌려간대거나 부여잡는 듯한 느낌이 없이 매끈한 얼음판 위를 달고 미끄러지는 듯한 깔끔한 다이내믹스가 매력적이다.



원목으로 만들어진 전면 배플 역시
 목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완화처럼 수직
 방향의 음각으로 파놓은 모습이 독특한데,
 일반적으로는 회절에 대한 효과도 감안한
 디자인으로 짐작된다.

몇 곡을 통해 테스트해 본 지역과 다이내믹에 대한 소감을 먼저 얘기하자면 소위 '헬름홀라인'이 전사하는 베이스 로딩은 상당히 획기적이면서도 지역을 제대로 즐기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간혹 새로운 방식에만 집착해서 실제 결과물은 동떨어져 있는 과장 광고의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는데 알베도의 경우는 자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으로 주장하는 대로의 설득력을 보여준다.

이 스피커의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서 알게 되는 점은 지역의 토대 위에 심어 놓은 뛰어난 음악성이다. 억제되지 않은 대역 특성이란 게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었을까? 1차 오더 설계의 6dB의 슬로프 특성은 최근에 시청한 어느 스피커보다도 유연하고 매끄럽다. 전반적인 특성으로 넓혀 시청해본다.

레핀, 아르헤리치가 연주하는 <크로이처> 3악장은 서서히 연주장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앞서 말해두고 싶은 것은 스피커에서 얼찍이 벗어난 스테이징이 독특한 느낌을 준다는 사실이다. 깊이감과 무관하게 특히 위쪽으로 형성되는 무대는 스피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한다. 마치 부르메스터의 스피커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스테이징이다.



이런 상황에서 빈 곳의 느낌은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다. 연주자의 거리와 공간이 검은 장막 위에 펼쳐지는 것처럼 선명하다. 바이올린은 다소 성세하면서 강약의 변화가 잘 포착되는 본 녹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피아노의 다이내믹 또한 호쾌하고 단호하며 하모닉스의 느낌도 별로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 오히려 약간은 풀어내도 상관없을 정도로 통제가 잘 되어 있다.

정명훈 지휘의 '미사 탕고' 중 '글로리아'는 필자가 아는 이 곡의 핵심 영역, 즉 명암의 대비, 슬랩, 트랜지언트 등에 있어서 결함을 찾기 어렵다. 이 복잡한 상황을 말쑥하게 정리하면서도 실제 연주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훈훈한 기운마저 보태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혼성 합창의 종료 직후에 번져가는 하모닉스에서도 일급의 그라데이션을 보여준다.

"헤레베헤 지휘의 'B단조 미사' 제 4곡에서 흔히 나타나는 지역의 부스팅은 알베도에서는 거의 없었다. 좋게 말해서 필요한 만큼만 들려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12곡에서의 8성 푸가를 풀어내는 대목 또한 다른 합창곡을 들으면서 예상했던 대로이다. 미세하게 표현할 곳과 매시브 하게 처리해야 할 곳을 잘 구분하며 능수능란하게 들려주면서도 이 대목에서도 냉랭한 느낌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고 시중 훈풍이 강되고 있다. 시칭한 '에밀레' 파워의 영향도 크겠지만, 알베도가 정식으로 드라이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들을 게 너무나 많아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다음 후보를 떠올리기에 부신했던 90년대 후반을 기억해보면, 3500만원이라는 가격은 여전히 오디오를 구매하기에 그리 간단한 그레이드라고 할 수는 없다. 본 제품은 90년대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오디오 파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싶다. 어느 정도 완벽한 대역 구사, 특히 작은 공간에서 저역에 대해 까다로운 사용자라면 반드시 시청을 권하고 싶다.

이 스피커에는 냉정한 통제 뒤에 실려오는 훈훈한 기운이 공존하고 있음을 자신이 즐겨 듣는 음원들만으로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한 철학이 담겨 있다. 이론에 기반한 설계로 고질적인 저역 피크를 전 대역에 걸쳐 손실 없이 해결한 미로형 트랜스미션, 이탈리아적 감성을 살린 미학적 디자인과 그에 따른 음향 효과, 그리고 음악을 즐겁게 들리게 해주는 스피커.

알베도 HL3.4는 기존의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 분명히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또 하나의 스피커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음악을 듣는 일이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간단한 제품이었다. 새로움을 갈망하는 애호가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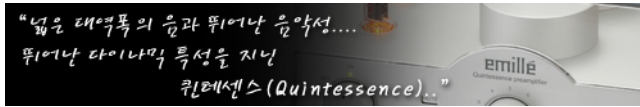
Specification

- System:** floor standing three way, linear phase
- Loading:** transmission line filtered by resonators (Helmholine System)
- Drivers:** 2 x 6.5" ceramic woofers, 5" ceramic midrange, 1.2" ceramic tweeter
- Crossover:** acoustic first order

Nominal impedance: 8 ohm
 Sensitivity: 89 dB SPL (2.83V/1m)
 Frequency response: 35 - 20,000 Hz
 Dimensions: 25 x 62 x 115 cm
 Weight: 65 kg net each
 Finish: striped ebony, striped walnut

수입사 (주)체스오디오
 수입사 연락처 02-6337-8008
 수입사 홈페이지 http://www.chessaudio.co.kr
 소비자가 3500만원

■ [목록](#)



[웹진 > 하드웨어리뷰 >](#)

게시물 수 : 383 페이지 : 1 / 19



[ALBEDO] HL 3.4 , 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엔드의... [HIFICLUB](#) 11-02-28 713

밀레니엄 이후의 스피커들에게 놓여진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소재의 무한개발과 사실적인 어쿠스틱, 그리고 음악을 통한 예술혼의 구현 등 그 입구와 출구 모든 면에서 이전의 어느 때보다 뛰어난 멀티플레이어가 요구되었다. 물론 가격은 정지된 채로 말이다. 이런 이유로 신구를 막..



[dCS] Debussy DAC , 정말하고 단정한 사운드가 매력적 장현태 11-02-25 929

최근 오디오 시장을 살펴보면 디지털 오디오 관련 인터페이스 기기들의 춘추전국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본격적으로 PC-FI가 보급되고, 메이저 브랜드들의 합류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쓸만한 DAC 제품이라고 하면 모델명..



[Transparent Audio] Powersolator 8 김성건 11-02-22 1126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감수하고 있을 뿐 누구나 다 전원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급되는 전기에 노이즈가 흘러 들어가거나, 전압이 너무 낮거나 혹은 높거나 혹은 계속 변화하는 경우 소리는 탁해지기도 하고 속 빈 강정처럼 푸석거리거나 늘어지는 등의 ..



[Emm Labs] XDS1 , 한없이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소리 돋보여 장현태 11-02-18 1252

Emm Labs는 SACD 플레이어 및 일체형 소스 기기 부분에서 탁월한 성능과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다. 동사는 1998년 캐나다에 설립되었는데, 창업자인 에드 마이트너가 세계 최초로 DSD 컨버터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었기 ..



[Audioquest] Wild Blue Yonder , 새로운 ... 박성수 11-02-15 987

이제 우리나라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을 출대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근계일 착처럼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의 하이엔드 케이블 시장에 대한 애정 공세를 꾸준히 펼치고 있는 회사가 있다. 1980년대 초반 설립되어 이제는 보급형에서 레퍼런스 클래스에 이르는 ..



[SOTM] iX-USB , USB DAC를 영두에 둔 사용자에게 추천 문한주 11-02-11 1752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컴퓨터에 설치하는 USB 카드다. Windows 2000, XP, Vista, 7과 OS-X v10.x를 지원한다. 윈텔 기반의 컴퓨터는 애초에 오디오 성능을 좋게 할 것을 영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 보니 오디오 애호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